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정당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정당 없는 대의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작년 총선은 1987년 이후 무소속 당선자가 한명도 없는 첫 총선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300석 중 283석이다. 2022년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872석 중 양당이 862석을 차지한다. 정당은 권력의 성패를 결정한다. 윤석열 권력의 실패는 여당의 기능부전에서부터 출발했다. 삼권분립은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라는 언급은 '이재명 권력의 민주당'을 상징한다. 개인화된 정당과 권력종속의 여당은 정당과 정치 그리고 권력의 연쇄 실패로 이어지는 필요조건이다.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붕괴는 '정당 좌절'의 전조 증상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의 여당보다 나을지 우려하는 이유다.

'정당의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의 제자리 찾기'가 핵심이다. 정당 특히 집권 여당의 제 역할 회복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정당의 연구는 다양한데 첫째, 조직 차원에서 정당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분석한다. 한국의 정당은 간부 정당,카르텔 정당 그리고 선거전문가 정당이다.

둘째,기능적 차원으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다. 포괄정당이 대표적이다.셋째, 체계의 차원으로 정

시대와 불화 겪는 한국 정당

당 간 상호작용과 정당 체계의 특성을 분석한다. 경쟁적 정당체계, 양당제와 다당제 등으로 분류하는데 한국 정당은 포괄정당으로 다당제의 경쟁적 양당제다.

최근 정당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거시적+미시적 접근의 융합이 등장한다.정당의 역사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는 거시적 입장과 개별 정당의 조직과 행태를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의 결합이다.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전통적 정당 연구의 제도와 구조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있다. 정당의 내부 문화와 조직 행태에 주목하는 '정당 문화론적 접근'이다. 한 정당의 문화가 그 정당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다. 예를 들면 정당 엘리트와 당원 수준의 조직 문화와 행태를 설명하고 계파와 이념적 분화 등을 설명한다.

정당 민주주의 또는 당내 민주주의도 다양성과 함께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당직과 공직후보 선출과정의 민주시성과 당내 의사결정 구조의 성격 그리고 당내외 계파 갈등의 양상 등이 조점이다.

정당 내부의 파벌구조와 문화적 역학 그리고 정당 지도부의 성향과 배경 등이 정당의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다. 정당 내부의 비공식적 규범과 조직 관행 등이 새롭게 주목받는다.

'스페인 포데모스와 이탈리아 5성운동'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두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은 정당의 조직 문화와 관계 있다고 한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근본적으로 다른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가진다. 이데올로기 중심의 운동체로서 교리적 순수성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문화의 공화당과 '이익집단 연합체로서 수평적 연대와 내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당'이다.

한국의 정당 문화연구는 아직까지 간접적이다. 당원 충원 방식과 조직 효용성 분석은 공개된 당원 수와 실제 유효당원 사이의 큰 차이를 발견한다.당원 충원이 주로 선거 입후보자를 매개로 한 동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연구에 따르면 정당 엘리트의 의사결정 과정의 주도성이 관찰된다. 진보정당에 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운동문화가 정당 내부로 이전되어 당원 주도형 제도가 사문화되었다고 한다.

성 평등 차원에서 한국 정당의 조직문화 분석도 있다. 정당 사무처의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가 여성 당직자의 정치 세력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여성 당직자들이 남성 중심적인 정당 조직문화로 인해 부서배치 차별과 인맥 형성 소외 등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 정당의 조직 문화와 행태는 첫째, 중앙당 중심의 위계적·집중적 구조로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둘째, 당 보다는 '후보자 개인'에게 충성하는 인물 중심적 문화와 당원의 수동적 참여다. 당의 신뢰와 충직함 보다는 '공천권'이라는 교환 관계를 매개로 한 인물 중심의 충성 문화가 지배적이다. 셋째, 한국 정당은 남성 중심적 인사구조와 계파 문화로 여성·청년·소수자 당직자들의 문화적 소속감과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적이다.

'배튼 추격자'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정당이 시대 변화와 그 흐름에 적응하기를 요구한다. 자율과 책임의 극대화과 다양성 제고가 시대의 방향이다.정치적 책임감과 공동체 우선의 공적 마인드는 전제조건이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대와의 불화를 넘어 설 수 있을까!

社說

일상이 된 ‘극한 호우’ 피해 예방 총력 다하길

시간당 80㎜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광주와 광주 인근 시군을 강타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차량에 갇혔던 주민들이 가까스로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천은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어제 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와 담양에 집중된 비는 시간당 강수량이 80㎜를 넘을 정도로 극한 호우였다. 이번 극한 호우는 기상청의 예보 없이 쏟아져 쏟아져 미처 대처할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 오전 10시를 전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줄기차게 쏟아 부었다. 광주 도심 주요 도로도 배수로 용량보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성인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 모습 이 연출됐다.

특히 상습 침수구역인 남구 백운광장과 대남대로 일대 상인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에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극한 호우는

인구 140만명인 광주시의 수해 대처 능력을 테스트 하는 계기가 됐다. 배수구의 용량은 극한 호우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물 빠짐이 제대로 되도록 막힌 곳은 없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는가를 실전 테스트 하게 된 것이다.

민선 8기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Y벨트사업'도 광주천의 홍수 예방 대책 없이는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극한 호우는 갈수록 일상화·대형화 될 것이다. 광주는 풍암동이 전국에서 여름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기록될 정도로 '광프리카'가 된지 오래다.

광주시와 자치구들이 극한 호우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극한 호우를 상수로 두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금타, 함평 새 공장으로 단계적 이전 환영한다

대형 화재로 공장 가동이 두 달째 중단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조만간 화재수습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한다. 로드맵에는 화재 수습 이후 공장 가동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신축 이전이 포함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회사측과 노조측 정보를 종합해보면 빛그린산단에 새 공장을 짓되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당초부터 빛그린산단에 부지 계약을 해 둔 상태에서 두 달전 광주 광산구 광주공장에서 화재 발생, 광주공장에 지을 것인지 빛그린산단으로 신축 이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광주공장 화재로 광주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빛그린산단으로 신축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노사 모두 신축 이전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빛그린산단으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서는 1조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 마련이 현실적인 문제라 일괄 이전보다는 화재 피해가 없는 광주 1공장을 가동하고 빛그린산단에는 천연고무와 카본블랙 등 원재료를 혼합해 타이어용 고무로 가공하는 정련공정 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차가 없다. 다만 노조의 일괄 이전 요구에 사측은 단계적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일괄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용 안정 때문이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수차례 보장을 약속했다. 일괄 신축 이전이 최상이지만 광주공장 부지개발비로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단계적 이전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노사를 떠나 지금 금호타이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광주공장 화재를 잘 수습해 회사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와 소통으로 최상의 카드를 로드맵에 담길 바란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신앙가의 믿음은 진리 실상에 대한 믿음이요 수행가의 믿음은 자기 자성(自性)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도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 모두를 망라한 신(信)이다. 법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도가에는 교단에 사업을 하는 공덕과 배푸는 공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으뜸가는 공덕은 '신심 없는 사람에게 신심 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교법과 법문이 점점 흘러들어 인격화되는 과정이 마치 모든 영양소가 혈관을 통해 신체 구석구석에 공급되는 것과 같이 법이 공급되는 통로는 신맥(信脈)이다. 신맥이 없으면 아무리 역수 같은 법우(法雨)를 퍼부어 주어도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심 없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수용자세(受容姿勢)가 형성되지 않고 준비도 안 된다.

그래서 '신'은 도가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신(信)'자와, 의심의 '의(疑)'자는 아주 가깝게 잡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의심이 있으면 믿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없다는 모순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도가에서는 "신이 십분(十分)이면 의심도 십분이고, 의심이 십분이면 깨달음이 십분"이라는 연장선

신앙가(信仰家)·수행가(修行家)의 믿음

상의 개념이다. '신'에 근거하지 않는 의심은 호의(狐疑)다. 호의는 스승도 저울질하고 법도 저울질하여 자기의 의견과 스승의 법에 대해 우열을 나누려 한다. 스승님들의 교법이나 인격은 상식적인 판단과 재색명리 등이 모든 명상(名相)의 의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높고 높은 정신세계에서 거닐고 있는데 우리 범부 중생의 사람으로 어찌 이를 측량할 수 있겠는가. 가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우리는 법을 빨아들여야 나의 피와 살이 된다. 신맥이 형성되지 않으면 금은보화를 주어도 돌아앉아 버린다.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다. 본인 안 받는 것이다. 원불교 대종경 신성품(信誠品) 7장에서는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두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어 깨달음으로 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정신(正信)을 가지고 있는가, 호의(狐疑)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신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모든 법문은 관문상(觀門相)에도 걸려들지 않고 피와 살이 된다. 그래서 불교 경전마다 법문을 신해수지(信解受持)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즉 믿고 이해하고 받고 간직한다는 뜻이다. 또 법문을 듣고 신수봉행(信受奉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한다. 즉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한다는 뜻이다. 또 신해오증(信解悟證)한다는 말도 있다. 즉 믿고 알고 깨달아 증득한다는 말이다.

모두 신이 그 첫 관문이다. 기독교 교리의 강령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세 가지 덕목 중에서도 믿음은 출발이요 기본이요 핵심이요 중심축이다. 믿음이 부실

하면 소망도 사랑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유교의 다섯 가지 덕목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도 그 중심에는 믿음의 정신이 있다. 유교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려는 경륜을 중요시 하는 가운데 치국의 요제를 즉식(肉食), 즉병(足兵), 즉신(足信)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부득이 하나나 둘을 버려야 할 경우 즉병이나 즉식은 버릴 수 있어도 즉신은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이 없는 곳에 법문을 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고 했다. 믿음은 곧 신앙가·수행가의 생명이다. '신'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를 수 없고 신앙적으로나 수행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사변적(思辨的)언설의 유희는 졸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절정의 실상을 터득한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다.

거기다가 진리 실상을 향한 절절한 믿음 즉 어디에나 계시고, 빠짐없이 모두 다 이시고, 한 사물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능력과 위력을 다 갖추시고, 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시고, 부리지 않는 바가 없고, 지고지존의 자리에서 우주 만유를 품어 안으시고, 알아 살피시고, 전체와 부분에 적응할 법칙을 설정하여 펼쳐 놓으시고, 그 법칙에 따라 생사여탈권을 가지시고, 우주의 성주공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인과진장의 변화를 주재하시어 이 거룩한 존재에 대한 절절한 믿음까지 가는 것이 신앙가의 믿음이다.

이러한 바른 믿음 문화가 온 세상 가득히 충만해 있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대명천지(大明天地)가 될 것이요, 무상천국(無上天國)이 될 것이요, 낙원세상이 될 것이다.

기 고

미술 감정평가, 공적 영역으로 제도화 해야



박정웅
감정평가사·경영학 박사

요즘 미술품 시장이 유난히 활기를 띠고 있다. 조각 투자, 공동구매, 온라인 경매 플랫폼 등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면서 미술은 감상의 대상을 넘어 하나의 자산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미술품은 분산투자 수단이자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뒤편에는 우리가 쉽게 놓치는 질문이 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사고 있는가?"

실제로 일부 미술 투자 플랫폼에서는 진위 여부를 확실한 작품이 거래되거나 전문가의 감정 없이 고가에 유통된 사례들이 확인된 바 있다. 미술이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 위험 요소이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일반 투자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잘 알려진 '레몬시장' 이론처럼 정보 비대칭이 심한 곳에서는 진품보다 가품이, 가치 있는 작품보다 마케팅에 의해 포장된 작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름 수밖에 없다.

실제 사례도 있다. 강남의 증전 갤러리 '서정아트센터'는 지난 몇 년간 "작품을 맡기면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 상품을 운영해왔다. 일부 상품은 월 1%에 가까운 고정 수익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익 지급이 중단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투자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작품의 가치와 진위를 검증할 '공적 감정 체계'가 없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라고 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감정이란 단지 진짜나 가짜냐를 넘어서 그 작품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시장 내 위치와 향후 가치 흐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정확한 필요과정 절차가 '평가'이

다. 감정을 바탕으로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수치화하는 일이다. 이는 부동산, 기업가치, 무형자산 등의 평가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예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복합적일 수 있지만 경제적 가치의 객관적 평가라는 점은 유사하다.

미술품의 가치는 단지 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느냐가 아니라 그 작품이 지닌 희소성과 상징성, 작가성, 예술사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평가가 이론적으로 제도적으로 설계되고 작동해야 비로소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기부, 상속, 문화재 등록, 공공 수집, 보험 등 다양한 제도 영역에서도 미술품은 다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하게 감정하고 평가할 기준은 여전히 민간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감정평가 실무를 통해 다양한 자산의 가치를 다뤄온 경험에서 보더라도 이제 미술품도 자산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감정은 '감(感)'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야 하며 예술품이 예술성 감상이 아닌 자산이 될 때는 그 가치를 공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마음은 모두 같으며 미술품의 감정과 평가는 지금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적 영역으로 제도화되었으면 한다.

無等鼓

야구 없는 저녁을 보내던 KIA 타이거즈 팬들은 후반기가 시작되는 17일을 기다렸다. 나성범과 김선빈이 부상 복귀를 하고 수습 뒤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낸 이의 리까지 출격을 앞두면서 오후 6시 30분은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불행책이 찾아왔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내리면서 이날 광주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는 일찍 우천 취소가 결정됐다.

야구는 날씨에 가장 민감한 스포츠다. 스파이크를 신고 뛰는 선수들에게 그라운드 상태는 중요하다. 여기에 가족으로 만든 클러브와 나무로 제작된 방망이를 사용하는 만큼 비에 취약하다. 가장 많은 144경기를 소화하는 종목이기도 하다. 사실상 사계절 내내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날씨에 리그 운영에 중요한 변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번덕스러운 유난한 날씨가 계속되면 서 이제는 그냥 '변수'가 아니다. 날씨를 '상수'로 두고 리그 운영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올해 KBO는 역대 가장 이른 3월 22일에 개막했다. 더위와 비로 인한 혹서기 경

각 구단은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개 구단으로 운영되는 KBO리그에서 돔구 나무로 제작된 방망이를 사용하는 만큼 비에 취약하다. 가장 많은 144경기를 소화하는 종목이기도 하다. 사실상 사계절 내내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날씨에 리그 운영에 중요한 변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번덕스러운 유난한 날씨가 계속되면 서 이제는 그냥 '변수'가 아니다. 날씨를 '상수'로 두고 리그 운영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올해 KBO는 역대 가장 이른 3월 22일에 개막했다. 더위와 비로 인한 혹서기 경

야구와 기후위기

야구 없는 저녁을 보내던 KIA 타이거즈 팬들은 후반기가 시작되는 17일을 기다렸다. 나성범과 김선빈이 부상 복귀를 하고 수습 뒤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낸 이의 리까지 출격을 앞두면서 오후 6시 30분은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불행책이 찾아왔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내리면서 이날 광주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는 일찍 우천 취소가 결정됐다.

야구는 날씨에 가장 민감한 스포츠다. 스파이크를 신고 뛰는 선수들에게 그라운드 상태는 중요하다. 여기에 가족으로 만든 클러브와 나무로 제작된 방망이를 사용하는 만큼 비에 취약하다. 가장 많은 144경기를 소화하는 종목이기도 하다. 사실상 사계절 내내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날씨에 리그 운영에 중요한 변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번덕스러운 유난한 날씨가 계속되면 서 이제는 그냥 '변수'가 아니다. 날씨를 '상수'로 두고 리그 운영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올해 KBO는 역대 가장 이른 3월 22일에 개막했다. 더위와 비로 인한 혹서기 경

야구와 기후위기

야구 없는 저녁을 보내던 KIA 타이거즈 팬들은 후반기가 시작되는 17일을 기다렸다. 나성범과 김선빈이 부상 복귀를 하고 수습 뒤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낸 이의 리까지 출격을 앞두면서 오후 6시 30분은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불행책이 찾아왔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내리면서 이날 광주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는 일찍 우천 취소가 결정됐다.

야구는 날씨에 가장 민감한 스포츠다. 스파이크를 신고 뛰는 선수들에게 그라운드 상태는 중요하다. 여기에 가족으로 만든 클러브와 나무로 제작된 방망이를 사용하는 만큼 비에 취약하다. 가장 많은 144경기를 소화하는 종목이기도 하다. 사실상 사계절 내내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날씨에 리그 운영에 중요한 변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번덕스러운 유난한 날씨가 계속되면 서 이제는 그냥 '변수'가 아니다. 날씨를 '상수'로 두고 리그 운영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올해 KBO는 역대 가장 이른 3월 22일에 개막했다. 더위와 비로 인한 혹서기 경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